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6.25 발발 70년이 흘러가도 여전히 두 동강난 조국 대한민국

세계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에게는 왜 떡이냐?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3시, 북한은 불법으로 38선을 넘어 전차를 앞세우고 남한을 기습하여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로 알려졌던 삼천리 금수강산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625가 사변, 동란, 전쟁 중 국제법상 어떤 명칭이 맞는가에 대한 소모적인 토론은 625 참전 유엔 16 개국 용사들에게 드디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라는 냉소적인 명칭까지 붙게 되었다.

그러나 625를 겪은우리 동포 세대들은 캐나다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UN 장병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가 너무나 심한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다는 뉴스는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주고 있다. 우라 동포들은 625 참전 16개국 사람들과 부딪치면 따뜻한 감사의 뜻을 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일요일 새벽 3시 패전국 일본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침실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각하!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잠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시게루 총리가 "웃시!!! 이제 우리 일본은 살았다!"면서 크게 손벽을 쳤다는 일화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특한가를 알 수있게 해주는 일화가 아닌가?

시게루 총리는 미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진 정치인이였다. 미국 맥아더 장군이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일본이 한반도 전투에 투입되는 미군 장병들과 군수물자의 교두보가 된 것은 물론이였다. 주한 미군들이 소비하는 식자재를 오키나와에서 공수해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주한 미군 5만명이 매일 같이 소비하는 식자재인 달걀, 야채 등 등을 일본에서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지금 예로 들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필립핀을 보자. 625때 남한에 파병을 할 정도로 동남아에서 잘 사는 나라였고 한국보다도 더 부자 나라였다. 필립핀 수빅 만(Bay)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미군 기지 철수 데모가 줄기차게 벌어지곤 하더니 드디어 그 엄청난 규모의 미군기지가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외국 군대가 내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필립핀의 경제에 한 몫 하던 미군기지를 그리워하는 필립핀이 되고야 말았다.

일본은 미국을 잘 알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2차 대전 때 원자탄 세례를 받고 천황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패전국 일본, 그러나 그들은 미국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용미 주의자였다. 40년 전쯤 년말 파티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자리에서 자기 조상들의 나라 일본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지닌 두 청년들과 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아주 예의바르고 유모어가 풍부한 청년들과 우스개 소리를 하다가 일본의 하와이 펄하버 공습 폭격까지 논하기에 이르렀다. 청년들은 숙연한 자세로 자기 조상들이 잘 못 판단하여 저지른 행위였다면서 에둘러 사과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두 일본계 캐네디안 청년들답게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즐거웠다면서 엄숙한 자세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출입문 쪽에 닥아 갈 무렵 뒤를 돌아 보며 손을 크게 흔들면서, "Next time VANCOUVER!!!" 라고 필자를 쳐다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라졌다. 아, 역시 저 젊은 친구들 무서운 청년들이구나! 그러니 그 섬나라가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잘 구슬리며 소위 용미주의로 나가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펄 하버에 역사의 산 증거물인 미조리호 선상을 돌아보는 것도 하와이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 얼핏 보기에 본토에서 여행 온 듯한 미국인으로 보이는 많은 인파가 대열을 서서 끈질기게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다. 질서 정리를 도와 주는 자원 봉사들 대부분이 고령인 것 같았다. 그 중에도 일본계 미국 노인들도 여러 명 눈에 띄였다. 봉사자 유니폼 자켓에 미7사단 마크를 부착한 일본계 미국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필자 역시 미7사단 출신이 아니던가? 반가워 했다. 그 노인 가이드는 외모는 순혈 일본 사람인데 일본군의 펄 하버 기습 공격에 대하여 내 조상의 나라 비행기가 와서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다는 점에 대하여 후손으로써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여기에 캐나다의 복합문화 정책과 미국의 용광로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주한 미군 병력 가운데는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 즉 카투사(KATUSA) 제도가 있다. 625가 터지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합의로 생긴 제도라고 하는데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선에 갓 도착한 미군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동반자였을 것이다. 주한 미군들의 식당, 체육관, 오락실 , 극장 안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에 "Come home clean! 깨끗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라!" 또는 "Till back home! 고향으로 돌아 올때 까지!"라는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다치거나 병들지 말고 군대생활 잘 마치고 오라는 뜻이겠지만 외국으로 파병된 미군청년들이 행여 몹쓸 병에 거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서 혹은 어디에서든 죽게되는 경우 꼭 너를 고국 땅에서 묻힐 수 있도록 시신을 꼭 찾아 고향 땅에 묻어 주겠다는 뜻이다.

세계 각 나라의 군대에 영현반이 있겠지만 미군들은 지금 부터 70년 전 한반도에서 실종된 미군들의 시산을 찾기 위해 구호 그대로 고향 땅으로 데려와 묻기 위해 수십년을 세계 각국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625 때 실종된 미군의 유골이 발견되는 주위에는 대개의 경우 한국군인의 유골이 발견된다고 한다. 625 때 카투사 선발 방법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오는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미군용 트럭에 집단으로 태워서 군복으로 갈아 입힌 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훈련소로 끌고가서 총 사격술을 간단히 교육시킨 후 한국전선에 투입, 미군들과 짝을 이루어 행동했다고 한다. 625 전투에서 미군들과 함께 인민군들과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가 7000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하와이에는 모든 과학을 총동원하여 뼈 한조각만을 깃고서도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발굴한 유골이 DNA를 통한 분석으로 카투사로 확인되어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반환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Land of morning calm으로 알려진 우리 조국에서 625 때 참전하신 켈거리 동포 어르신들과 캐네디안 참전용사들도 여러분 계신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미군 유골 감식반에서 한국 군인으로 판명한 유골함을 한국군 영현반 원들이 하와이에서 인수받고 있다.

트뤼도 총리

억류된 캐나다 국민과 화웨이 부회장 맞교환 거부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의 송환을 위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석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중국에 억류된 자국민 2명과 멍 부회장의 맞교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뤼도 총리는 "(맞교환)조치는 캐나다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캐나다에 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매년 해외로 나가는 수백만명의 캐나다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캐나다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나 무작위 체포가 캐나다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구금 1년6개월만에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멍 부회장과 억류자 맞교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캐나다인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국가 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멍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지 9일 만에 체포된 것이어서 중국이 캐나다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19일 구금 1년6개월 만에 이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한 것이 멍 부회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뤼도 총리는 두 사람과 멍 부회장 체포가 명백히 연관돼 있다며 보복 차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멍 부회장 석방 가능성을 일축하며 "우리는 중국이 한 일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앞으로도 변함없는 굳건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캐나다인들을 체포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CMP 경관이 여자환자 배 · 머리 밟아

BC주에서 연방경찰 과잉무력 논란

사건 영상 결정적 증거로 제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연방경찰과 시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경관의 난폭한 과잉진압 정황을 보여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오카나간 캠퍼스에 재학 중인 모나 왕은 지난 3월23일 연방경찰(RCMP) 레이시 브라우닝 경위(corporal)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왕씨 측 주장에 따르면 그는 올 1월20일께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자 남자친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브라우닝 경위는 의식없이 바닥에 누워 있는 왕씨에게 일어날 것을 종용하고 반응이 없자 그의 팔을 누른 채 배를 걷어찼다.

이후 반쯤 의식을 잃은 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운 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끌고가면서 안면을 주먹으로 쳤다.

왕씨 변호사는 "브라우닝 경위가 왕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나 설명없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그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라우닝 경위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위에 빈 술병이 있었고, 왕씨가 손에 커터칼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자 왕씨가 갑자기 매우 공격적으로 반항하면서 "죽고싶다"고 소리쳐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 제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은 정신질환법(Mental Health Act)에 근거해 그를 구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라우닝 측의 이같은 주장은 23일 왕씨의 변호인이 사건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영상에는 브라우닝 경위가 속옷차림의 왕씨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거칠게 끌고 나온 후 심지어 누워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왕씨 머리를 발로 밟는 모습이 있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켈로나 시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신질환자들을 대하는 경찰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경찰은 브라우닝을 사무직으로 이동시키고 자체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